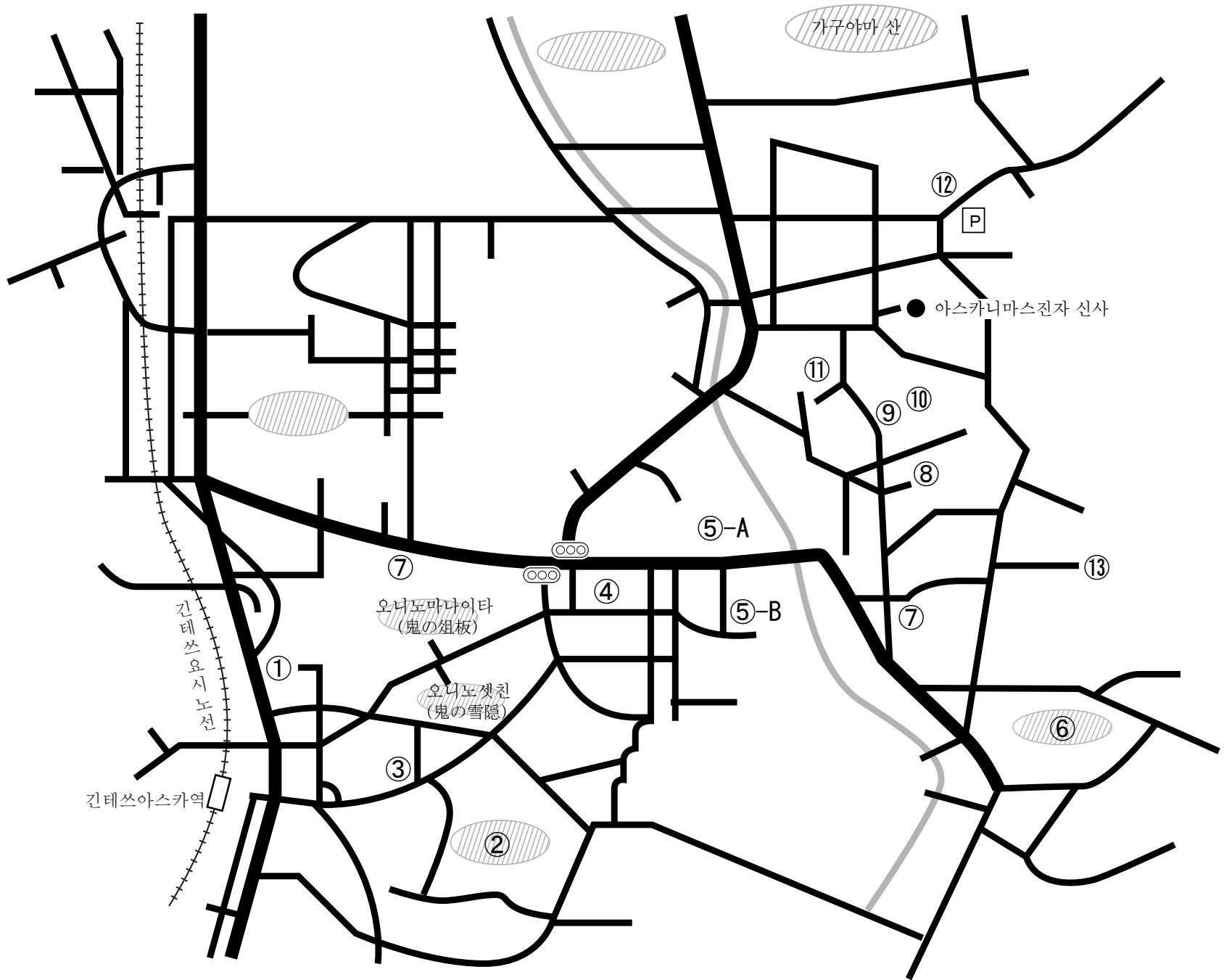


국영아스카역사공원



- ① 기비쓰히메오키미노하카
- ② 다카마쓰즈카 고분
- ③ 아스카역사공원관
- ④ 가메이시
- ⑤-A 가와하라테라야토
- ⑤-B 다치바나테라
- ⑥ 이시부타이고분
- ⑦ 아스카아이조메센관
- ⑧ 사카후네이시
- ⑨ 아스카민속자료관
- ⑩ 만요문화관
- ⑪ 아스카테라
- ⑫ 아스카자료관
- ⑬ 오카테라

국영아스카역사공원 - 도보 하이킹 코스

【교통편】 긴테쓰나라역(近鉄奈良駅)에서 전차를 타고 야마토사이다이지역(大和西大寺駅), 가시하라진구마에역(橿原神宮前駅)에서 환승하여 아스카역(飛鳥駅) 하차

② 다카마쓰즈카고분(高松塚古墳)과 다카마쓰즈카벽화관(高松塚壁画館) [250 엔] (아스카역에서 15 분) - 다카마쓰즈카고분은 7 세기경에 만들어진 고분으로 1972 년 발굴되었다. 화려한 고분벽화로 유명하나 현재는 외관만을 볼 수 있으며 내부는 첨단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1977 년에 고분벽화를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벽화관을 마련하였다. ③ 아스카역사공원관(飛鳥歴史公園館) [무료] (벽화관에서 걸어서 10 분) - 아스카지역의 전체지형도가 전시되어 있어 앞으로 들를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화장실, 자판기 있음. ④ 가메이시(亀石) [무료] (역사공원관에서 걸어서 25 분) - 정면에서 보면 거북이 웃고 있는 듯이 보이는 바위.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바위가 아스카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⑤-A 가와하라데라아토(川原寺跡) 절터와 ⑤-B 다치바나데라(橋寺) 절 [300 엔] (가메이시에서 걸어서 10 분) - 다치바나데라 경내에는 선과 악의 두얼굴을 지닌 이면석이 있다. 이것도 불가사의한 바위중 하나. 도시락이 있으면 가와하라데라아토에서 먹어도 좋다. ⑥ 이시부타이코분(石舞台古墳) [250엔](다치바나데라에서 걸어서 20 분) - 거석을 쌓아 올려 만든 일본 최대의 황혈식석실고분으로 아직까지도 누구의 무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바로 옆에 복원된 석관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놓치지 말것. 근처에는 일식 레스토랑이 몇군데 있다. ⑦ 아스카아이조메센관(飛鳥藍染織館) [무료] (이시부타이코분에서 걸어서 10분) - 아스카무라관광회관(明日香村観光会館) 옆에 있으며, 낡은 민가를 개축한 건물로 안에는 오래된 아이조메(쪽물염색)작품과 함께 아스카 토령(土鈴 - 도자기방울), 아스카의 풍경사진을 전시해 놓았다. 수타 소바 및 각종 차도 즐길수 있다. 사전예약시 염색 체험도 가능하다. 손수건(50×50cm) 흘치기염색 1,000 엔, 남결염색 1,500 엔, 토령에 그림그리기 1,000엔. 소요시간은 약 1시간. ⑧ 사카후네이시(酒船石) [무료] (아이조메센관에서 걸어서 15 분) -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약간 높은 언덕위에 있다. 불가사의한 바위중 하나. ⑨ 아스카민속자료관(明日香民俗資料館) [무료] (사카후네이시에서 10 분) - 에도시대이전(16 세기경)의 건물을 옮겨 아스카지방의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해 놓았다. ⑩ 만요문화관(万葉文化館) [600 엔] (아스카민속자료관 옆) - 전시물이 상당히 많으므로, 오후시간을 여기서 보낼 수도 있다. 우천시에도 실내전시관이어서 좋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요슈(万葉集)」와 관계있는 창작일본화 전시 코너, 옛날 만요인의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코너 등이 마련되어 있다. 피곤해졌으면 여기서 버스로 가시하라진구마에역(橿原神宮前駅)으로 돌아간다. ⑪ 아스카데라(飛鳥寺) 절 [300 엔](만요문화관에서 7 분) - 6 세기 말에 창건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원. 본존인 아스카 대불은 7 세기초의 작품.

【도움이 되는 정보】

* 아스카무라(明日香村) 내의 이동수단은 가메버스(亀バス)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일일자유승차권이 650엔으로 아스카역에서 아스카무라를 돌아 가시하라진구역히가시구치(橿原神宮駅東口)정류장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지도상의 번호가 붙은 곳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 1km = 걸어서 약 15분